

보도해명자료 (17.8.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정부, 전력예비율 맞추려 기업에 전기감축 요구' 등
보도에 대한 입장 (17.8.7, 한국경제)

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전력예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에 전기감축을 요구하여 공장을 못 돌릴 지경

○ 전력수급 여유 있는데 脫원전 논쟁서 우위 노력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수요자원 거래시장(DR 시장)은 전기사용자가 전력수요(피크)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시장에서 보상을 받는 제도로서 전력거래소가 피크감축 필요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활용기준*에 맞도록 시행

○ 7월은 설비에비율은 높았으나, 최대전력 경신이 예상되는 등 同 기준*을 충족하였고 DR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행한 것으로, 脫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님

- * ① 수요예측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
②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,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
③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

□ DR시장은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기업체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(044-203-5240)
임기홍 사무관(044-203-5254)

< (참고)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요 >

□ (정의) 전기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전기를 아낀 만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반응* 제도

* (수요반응, Demand Response) 전력 소비자가 전기요금 또는 금전적 유인 등에 의한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로 반응하여 정상적인 전력 소비패턴을 조정

○ (편익효과) 전력수급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경제적 편익 발생

< 수요시장의 편익효과 >

- ① 전기사용자 : (수요자원) 자발적인 수요감축으로 요금 절감·수익 창출, (일반소비자) 한전의 구입전력비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
- ② 수요관리사업자 : 빌딩, 아파트, 공장 등 전기사용자 중 감축 가능한 수요자원 모집·관리·에너지컨설팅 등에 대한 수수료 수익 창출
- ③ 판매사업자(한전) : 전력구입비 절감과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

□ (운영방법) 정전 예방 및 최대전력 삭감을 위한 피크감축 수요반응과, 전력공급비용 절감을 위한 요금절감 수요반응으로 구분하여 운영

○ (피크감축 DR) '감축지시에 1시간 이내 감축' → 수급상황 급변시 긴급하게 가동되는 비싼 발전기 대체 → 기본급* + 실적급 수령

* 발전기의 용량가격 책정 방식으로 산정(1년에 43,000원/kW-year 수준)

○ (요금절감 DR) '하루 전 전력시장에 입찰' → 일반 발전기 입찰가격보다 수요 감축가격이 저렴할 경우 수요 감축 → 실적급* 수령

* 전력시장가격(SMP)으로 보상

< 수요시장의 거래절차 >

